

미쳐버린 세상
을 위한 하나
님의 처방



미쳐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오늘날 세상이 미쳐버렸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기적인 세상의 광기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삶의 거의 모든 활동에서 드러난다. 이로 인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지구상의 광대한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대륙을 가로질러 인류의 마음은 앞으로 닥칠 더 끔찍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유능한 정치가들과 통치자들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인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때가 왔습니다. "민족들은 바다의 요동과 이상한 조류에 당황하여 혼란에 빠질 것이며, 사람들이 땅에 닥쳐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21:25,26). 세상이 보는 대로,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함께 당혹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당혹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탈출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난국에서 벗어날 길도, 예수님이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큰 환난"이라고 묘사한 이 시대의 인간 행동의 광기에서 벗어날 길도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21).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 1절의 예언을 크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같은 시기를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마태복음 24:22).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날들이 그의 교회, 즉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적 권능으로 단축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의 광기라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인간의 관점에 동의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와 이기주의라는 악한 길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미쳐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 언급한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탈출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타락한 인류의 병폐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은 왕국, 즉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전체를 통해 이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중 하나는 왕국 안에서 오실 위대한 메시아이자 왕에 관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 통치와 평화가 끝없이 늘어나리니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7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왕국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예언을 기록하셨으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왕국은 산, 즉 "주의 산"으로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따르면,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이 산은 먼저 이 세상의 불경건한 왕국들과 정부들을 치는 돌로 나타나며,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울 큰 산이 됩니다. 이 장 45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인용하자면, "네가 돌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산에서 나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 부수고 부수어 부스러뜨리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큰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이요, 이 꿈은 참되고 그 뜻은 확실하니라." 이사야 25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산에 비유합니다.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리니, 맑고 오래된

포도주와 좋은 고기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이사야 25:6

왕국의 복

미가 4:1-4에는 왕국의 축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집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세워지고 모든 언덕보다 높을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모여들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임할 왕국을 산에 비유하신 것은 적절하다. 이 예언들은 우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산에서 통치받는 것에 익숙했다. 예루살렘의 시온 산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부의 국가적 본부였다. 바로 이 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했다. 그러므로 이 예언과 다른 예언들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산이 산들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가의 왕국 수립 예언에는 추가적인 설명과 흥미로운 점이 소개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집의 산"임을 읽는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한 표현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통치 가문은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육신적 후계자들은 장차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가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여러 사례에서 국가와 제국을 통치하는 가문은 왕이 죽으면 통치권이 같은 가문의 다른 구성원에게 넘어가는 가족적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적 집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 집안은 그의 아들들로 구성되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읽는다. (요한복음 1:11,12). 예수님 아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문의 첫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영예를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려, 미리 정하신 수를 채워 그의 통치 가문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후 믿음을 가진 자들,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이 된 자들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들이 계속해서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8:16-19).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 함은 또한 그의 고난도 함께 해야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도 헛된 탄식으로 함께 신음하며 하나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의 길

미가서 4장 1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으로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리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2장 2-4절의 유사한 예언은

“모든 나라가 그곳으로 모여들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두 예언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모여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리라 확신합니다 :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기 때문이라.” 3절

이 예언에서 시온 산은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하고 영광스럽게 된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영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왕국 기능의 더 넓은 측면, 즉 지상에 있는 인류와 이해 가능한 접촉을 이루는

측면이다. 이 접촉은 옛날의 신실한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옛 종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다른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8:11). 여기서 “앉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의 표현은 제자들이 스승이나 교사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고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왕국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을 전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미가의 예언에 나오는 상징적인 예루살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국의 영적 단계와 지상적 단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상적 단계에 있는 자들은 영적 단계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며, 예수와 그의

교회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이 예언 속의 백성과 나라들은 주님의 길을 알고 따르려는 그들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 때에 "그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나라들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이 칼을 벼라로, 창을 낫으로 만들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미가 4: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님의 길과 이기적인 사람들의 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잘못된 인간 철학은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배울 때, 그들은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칼을 보습으로, 그들의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방어를 위해 대규모 군대를 계속해서 구축하는 것, 즉 그렇게 하여 평화를 보장받는 대신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광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진전이 될지 생각해보라! 더 이상 어머니는 아들이 전장에 보내져 도살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광대한 군사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며, 산 꼭대기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즉 모든 민족의 일을 주관하실 그 나라 안에서

온 땅에 시행될 방식입니다. 우리는 미쳐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책의 이 측면을 기뻐합니다!

미가 예언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모든 인류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두려움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생계 수단을 잃고 복지 의존 상태로 전락할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여 집에서 쫓아내거나, 자신이나 가족의 굶주림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서서

말씀하셨다”는 가장 복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쳐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실행 가능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이보다 더 나은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때때로 누군가—심지어 고위 정부 관료들조차—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정부가 이러저러한 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주님의 집의 산처럼, 모든 백성과 나라 위에 신성한 권능으로 임의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님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때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수세기 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며, 어떤 이들은 기도해 온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길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더 필요한 것

미가의 예언(4:1-4)에 상세히 기록된 대로,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 축복이 아무리 놀랍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모든 인간적 고통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미가의 예언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므로 전쟁이 사라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전쟁과 무기 유지에 쓰이는 자원을 국가 간 평화와 선의를 증진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보장될 것이며, 누구도 집을 빼앗기거나 굶주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인류()는 인간 필요의 모든 측면에서 번영과 풍요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끔찍한 슬픔과 고통의 재앙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죽어가는 종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에 병원이 곳곳에 널리 퍼져 있고, 그 병원들이 고통받는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신병원이 넘쳐흐를 정도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가정은 조만간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

우리는 하늘에 육신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으며, 하늘에 굶주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병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모든 병폐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미 인용된 예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산으로 비유되며, 질병과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이사야 25:6-9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베푸실 수많은 축복을 언급하며, 이 산에서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놀라운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고 오래 숙성된 포도주와 선택된 고기로 이루어진 맛있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 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구름을 걷어내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는 인류 대다수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 온 지식의 결핍, 즉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관한 지식의 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무지의 큰 구름이나 장막이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 장막이 열국 위에 드리워져 있기에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지금 이 장막을 뚫고 주님의 길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장막은 걷힐 것이다. 다른 예언들이 그때 “땅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사야 11:9; 하박국 2:14

이 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죽음을 삼켜 버리시리라"(이사야 25:8). 다른 번역본은 주께서 죽음을 물리치시리라 더 강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 큰 원수인 죽음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에 의해 쳐부수어질 것이며, 더 이상 온 인류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은 계속되어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그의 백성에게 내리는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닦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 아래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기서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시골에 넘쳐흐를 것입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에 대한 책망이 온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책망은 죄와 죽음의 통치 시대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도록 그의 무리를 선동해 왔으며, 그들은 책망받고, 박해받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길, 곧 의와 평화와 선의의 길을 위해 단호히 서려는 준비와 용기를 가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주님의 집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망을 그분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왕국 약속 중 하나는 "그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불리는, 백성을 속이고 억압하는 자가 그때 결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요한계시록 20:2).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는 전망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가! 이사야 2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이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 바로 그 복을 기다리며 갈망해 왔음은 사실이다. 그들은 이 복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상태를 유토피아(Utopia)나 다른 아름다운 이름들로 불렀으나, 이 복들이 그들에게 쏟아질 때(),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그 근원을 깨닫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이 위대한 설계의 창시자이자 계획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설계는 전 세계적이며 영원한 평화와 건강,

영생, 그리고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축복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세상의 극소수만이 누려온 그런 축복이다.

신약성경의 확증

우리가 주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용해 왔지만, 이 소중한 약속들은 모두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관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곳곳을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씀하신 메시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20-24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며 그때 세상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 회복의 때를 예언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한 회복은 그가 방금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기적을 통해 예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1-8). 또한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 앞에서 증언하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장로들의 소망은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14,15

바울의 부활 교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울의 탁월한 부활 교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그리스어 - 임재]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리라." 이 서술 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라를 넘겨 드릴 때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20-26

죽음 그 자체가 마침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포괄적인가! 물론 이는 죽음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자들이 깨어나 나머지 인류와 함께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광기의 발현으로부터 자유롭고, 질병의 병폐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완벽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 세대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불만족스러울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미쳐버린 세상을 위한 그분의 해결책은 전 포괄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후로 균형을 잃어

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세대는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화도 경험해 왔습니다. 모두 고통과 죽음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에 쓰러질 때 슬픔으로 가득 차고 눈물이 넘쳐흘렀습니다.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 섭리 밖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간들 사이에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너머에도 희망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즉,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성경은 이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요한복음

5:28,29). 선을 행한 자들(즉, 이 생애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살며 다스릴 것이며, 이는 온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러 나올 것이다. 즉, 그들은 나와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되며, 그 새 세상의 유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구약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감 받은 말씀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포로에 비유하시고, 죽음에서 깨어남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들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온 인류

세계를 아우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돌아옴으로 묘사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주께서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하나님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르시되 '사람의 자손들이 돌아오라' 하시나이다" 시편 90:1-3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어 미완성된 땅에서 죽게 하셨을 때, 인간은 파멸로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고난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관계의 끝이 아니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이키신 자들은 놀라운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돌아오라, 인자한 자들아." 그렇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구속과 구원을 마련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권능으로 죽은 인류 전체를 불러 살아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35:10에는 죽음에서 돌아오는 인류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와 랜섬받은 자들[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랜섬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에 이르리니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 장 전체에 걸쳐 고통받는 세상에 제시된 밝은 소망에 얼마나 어울리는 절정인가! 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르기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리니, 그가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시리라. 그가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시리라." 이사야 35:3,4

이 약속은 오늘날 특히 적절합니다. 이는 죄로 저주받고 죽어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세상에 보복을 내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보여주듯, 그 보복은 보상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리라."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목마른 땅이 샘물이 되리라. 용들이 늪던 곳에 갈대와 갈대풀이 자라리라.” (5-7절). 오늘날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전망에 이 변화가 가져올 의미는 얼마나 클까! 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거기에 큰 길이 있고 길이 있으리니 거룩한 길이라 불리우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즉, 부정한 자들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로서] 그 길은 []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니,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자도 거기 없고, 포식하는 짐승도 없으며, 거기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이 거기 걸으리라.” (이사야 35:8,9) 이어 10절에는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죽음에서 돌아와 머리에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지니고 있을 때의 축복의 절정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선지자가 "사자가 거기 없을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약속은 그때 사탄이 결박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사탄을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포효하는 사자로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8

하나님께서 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실 그 새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때에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의가 비옥한 땅에 머물리라. 의의 열매는 평강이요 의의 효과는 영원한 고요와 안전이니라. 내 백성[온 인류]이 평안한 거처에, 안전한 집에, 고요한 안식처에 살리라." 이사야 32:16-18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통치하며, 미쳐버린 세상을 위한 그의 치유책이

완전히 실행되는 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전망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지요! 인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지요!

마지막 증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증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책 전체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우리는 20장, 21장, 22장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확신에 대해 간략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20장에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사탄이 결박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실한 추종자들인 교회가 천 년 동안 살아 통치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베풀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죽음과 지옥이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며, 죽음과 지옥이 모두 멸망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울음도 아픔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은 참되고 믿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4-5절).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보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요, 수정같이 맑은 것이더라. 그 강 가운데와 양 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는 만민을 치료함이라.” (요한계시록 22:1,2).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고 듣는 자도 오라 하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시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미쳐버린 세상의 병폐를 치유할 방안을 진실로 마련하셨다는 더 큰 확신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 열방은 치유가 필요하며, 이 예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유하실 방안을 마련하셨음을 듣는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고개를 들어, 이 왕국이 곧 세워질 것을 기대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